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36호 [주간 제2610호]

주체 109  
(2020)년 9월  
5일  
토요일  
음력 7월 18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김정은 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 국제사회계가 터치는 흠모의 목소리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계승 완성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찬란과 존경은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도 반영되어있다.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 책임자는 이렇게 칭송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력사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시었으며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한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제재와 봉쇄 그리고 가중되는 위협속에서도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시고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시였다.

자재의 발전잠재력을 우선시할때 대한 로선을 제시하신 김정은 동지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어 경제토대를 굳건히 다지시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체스코프랑산당-21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세계 근로인민들이 넘겨주는 강력한 사회주의사회건설과 주체혁명위업실현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

그이의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강국으로 되였다.

김정은동지는 조선인민의 영웅적투쟁을 승리로 이끌고서 혁명투쟁과 건설의 자랑찬 승리를 펼쳐가시는 절세의 위인이시였다.

에집트민족진보통일련합당 위원장은 조선인민은 김정은령도자각하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주로선과 반제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사수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원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로선과 방략을 제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전횡으로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운명이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속에서도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경제강국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것은 세계가 공인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를 받고있기때문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은 길이 빛날것이다.

광범한 세계인론들도 종교적 편견을 버리고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겨 줄 살림집들이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멋들어지게 설계된 데 맞게 군인들은 천부모, 친형제의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공병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하고있다.

한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사업은 성차지 않아 더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살림집을 훌륭히 완공하기 위해 힘찬 들

한 애국애민의 의지와 탁월한 정치실력으로 공화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사건문헌들을 모시고 《김정은위원장의 의지와 정치실력》, 《인민을 사랑하는 령도자》, 《세계가 칭송하는 최고령도자》, 《한없이 다정다감한 령도자》 등의 제목들로 특집하였다.

로세아의 인터넷포럼지 《쁘띠리오의 모스크바》는 이렇게 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정치무대에 등장하신 첫 시기부터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국제사회계의 가장 큰 관심을 모으신 지도자로 찬양받으시였다.

그이께서는 현대과학과 기술, 경제발전방향과 추세, 문학예술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계신다.

인민에 대한 사랑은 그의 천품이다.

세계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로 칭송하고있다.

김정은위원장의 령도실력을 조선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결정적담보이라고 하면서 아랍소련형제사회 인터넷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김정은 위원은 조선에서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인민들에게 존엄높고 행복한 삶을 안겨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완벽하게 들고계시는 실력가형의 령도자이다.

그이의 령도실력은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언제나 주도권을 쥐고 혁명을 끊임없는 상승으로 이끄시는 빛나는 예지이고 천만대중을 하나로 움직여 만민을 극복해나가는 원숙한 조직동원력이며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힘으로 기적을 안아오시는 비상한 창조력이다.

김정은 위원은 장께서는 특출한 령도실력으로 그처럼 짧은 기간에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여 나라의 전략적지위를 급부상시키는 력사적대업을 빛나게 성취하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새로운 시대정신, 시대속도가 창조되도록 하시였으며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과학기술열풍이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나도록 하시였다.

자기 령도자에 대한 조선인민의 신뢰심은 김정은위원장께서 지니신 뛰어난 령도실력에 대한 끝없는 애독이고 절대적인 믿음이다.

에집트의 인터넷신문 《이벤트》는 이렇게 보도하였다.

김정은위원장께서 펼치시는 애민정치가 국제사회를 감동시키고있다.

그이께서는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국가활동의 기본요구로 확립하시였다.

또한 나라의 억만재부도 인민을 위해서만 가치를 가

진다고 보시며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것 그자체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시였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도덕도 인민을 위하고 인민적인것만이 장려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김정은위원장의 숭고한 사명감을 조선을 존엄높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는 근본원천이다.

《중국국제경제TV》신문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적승리를 안아오시어 전 세계앞에 뛰어난 예지와 정치실력, 고매한 위인적품모를 보여 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강철같은 신념, 완강한 실천력으로 조선의 국력과 지위를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였다.

그이를 모시어 조선의 앞날은 보다 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것이다.

쿠웨이트신문 《알 사히드》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부닥치는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자력부강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

《조선에서 이룩된 모든 비약적인 성과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정책이 낳은 필수적결이다》,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와 봉쇄도 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선의 의지를 가로막지 못한다》, 《조선은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련의 최방의 등대로 되고 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자력으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용과 기상은 국제사회계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공화국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해나가고있다.

그 어느 나라나 민족을 막론하고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할때만이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발

결과 반영을 이룩해나갈수 있다.

공화국은 창건된 첫날부터 자주로선을 견지하는것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압살공세속에서도 공화국이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며 자기가 선택한 정의의 한길을 따라 꿋꿋이 전진해

올수 있는것은 정치에서 자

주의 립장을 확고히 견지해왔기때문이다.

국가건설과 활동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의사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 공화국의 자주정책은 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과시되고있다.

공화국은 경제에서도 자립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있다.

경제적자립은 자주적인 국가건설의 물질적담보이고 전제로 되고있다.

력사에는 남의 도움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전례가 없으며 더우기 다른 나라에 변영을 선사해준 《구세주》도 존재한적이 없다.

남에게 예속되지 않고 제발로 걸어가는 경제, 자기 인민을 위하여 북부하며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다.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남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상으로 이끌어왔다.

남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할 때에도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나아갔으며 바로 그 길에서 남들이 몇백년이 걸려야 이룩한 모든것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룩하고 변영의 튼튼한 토대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들어쥐고 자립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기때문이다.

공화국은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자기 힘으로 나라를 지킬 능력이 없으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침략적인 외세의 통략물이 될수밖에 없다는것은 인류정치사가 새겨놓은 피로운 교훈이기도 하다.

평화로운 시기에도 존엄한 시련의 나날이나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전쟁책동도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강위력한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오늘 공화국은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완성함으로써 자기 나라의 자원과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길만이 진정한 발전을 이룩하는 길이다.

공화국은 자립적민족경제 건설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남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으로 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양상으로 이끌어왔다.

남들이 《통합경제》를 강요할 때에도 자립적경제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는 길로 나아갔으며 바로 그 길에서 남들이 몇백년

이 걸려야 이룩한 모든것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룩하고 변영의 튼튼한 토대인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었다.

오늘 공화국이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값진 재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고있는 것은 지난 수십년간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확고히

본사기자 김 철

## 큰물과 태풍피해복구사업 힘있게 전개

###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장에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장에 달려나간 인민군군인들이 살림집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향상시키려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펼쳐나신 인민군군인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살림집기초공사가 기본적으로 계속되고 벽체축조공사가 적극 추진되고있다.

인민무력성 현장지휘부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면밀히 세우고 부대들사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전투정상을 혁명열, 투쟁열로 끌어받치기 하였다.

지휘관으로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가 하루전투목표수행은 성차지 않아 더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살림집을 훌륭히 완공하기 위해 힘찬 들

거적을 벌리고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안겨 줄 살림집들이 생활에 보다 편리하고 멋들어지게 설계된 데 맞게 군인들은 천부모, 친형제의 집을 꾸리는 심정으로 공병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 건설물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하고있다.

또한 건설장비와 문전기재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공사에 필요한 많은 량의 모래, 혼석, 막돌을 자체의 힘으로 마련하며 살림집완공을 위한 철야전투를 벌려가고있다.

인민군군인들의 전투적기질과 투쟁분배에 의해 건설성과는 날마다 확대되고있다.

한편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피해복구에서는 태풍피해를 신속히 가시기 위한 군민협동작전이 힘있게 전개되고있다.

이번에 들이닥친 태풍8호의 영향으로 대청리의 농경지와 농작물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었다.

본사기자

## 청년절경축 야외공연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 진행



청년절경축 야외공연 《청춘들이 받들자 우리 당을》이 8월 28일 평양의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청년들의 혁명적명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커다란 긍지와 기쁨을 안고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불야성을 이룬 공연장으로 모여왔다.

청년중앙예술선대와 중앙과 지방예술단체의 예술인들, 시안의 예술교육부 교원, 학생들이 다채로운 공연종목들로 청년절의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화려하게 단장된 무대에 노래와 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청춘송가》가 울렸다.

청년중앙예술선대와 중앙과 지방예술단체의 예술인들, 시안의 예술교육부 교원, 학생들이 다채로운 공연종목들로 청년절의 밤을 환희롭게 장식하였다.

화려하게 단장된 무대에 노래와 춤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청춘송가》가 울렸다.

출연자들은 탁월한 청년중시정치, 청년사랑의 위대한 경륜을 펼쳐가는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인공으로 준비해가는 청년들의 끝없는 자긍심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우리 청년들을 억만자루의 품을 들어 주체혁명위

업수행의 맹장부대, 혁명의 계승자로 역세게 키워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흐르는 녀성독창과 녀성방창 《금방식》은 관중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우리 청년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심이 넘치는 《친근한 우리 원수님》, 《그 품이 제일 좋아》 등의 노래를 들으며 관람자들은 태양의 축복속에 끝없이 밝고 창창한 청년강국의 패일을 다시금 가슴뿌듯이 새겨안았다.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는 로동당시대에 청춘의 자서전을 값높은 위훈으로 수놓아가는 애국청년들의 드높은 열정과 방랑을 보여주는 이 새로운 종목들이 공연무대에 련이 울렸다.

투쟁적인 조명효과로 황홀경을 이룬 무대에 펼쳐진 체육물동과 노래 《청춘과 용



감성》과 경쾌한 하모니카4중주, 청춘가요연곡은 청년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었다.

청춘의 기백으로 충만된 광장에 《영광을 드리자 위대한 우리 당에》의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며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백두의 혁명정신과 용감한 돌진력으로 오늘의 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과시하며 합창 《우리는 혁명의 계

승자》, 《가리라 백두산으로》,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가 수도의 하늘가에 메아리쳤다.

본사기자





# 우리의 국기, 우리를 낫던 우리

9월의 하늘가에 람홍색기 발이 펼쳐진다.  
 바라볼수록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애국의 더운 피를 끓여주는 한없이 소중한 우리의 국기, 승리와 영광으로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70주년 역사를

## 새 조선의 탄생을 알린 공화국기

국기는 국가를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가장 중요한 상징의 하나이다.  
 누구나 바라보면 조국을 생각해 하는 국기는 잃으면 치욕의 땅노가 되어야 하는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언제부터였던가. 조선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발이 처음으로 휘날리게 된 것은.

1948년 9월 9일 공화국이 창건된 그때부터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을 온 세상이 선포하며 맑고 푸른 조국의 하늘가에 높이높이 띄워 올린 람홍색공화국기. 그것은 일찍이 인류의 지성이 예언한 것처럼 절세의 위인을 모시어 동방의 밝은 빛으로 떠오른 새 조선의 모습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에는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조선이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면서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어 《시일야방성대곡》으로 피눈물에 젖었던 조선이 마침내 자기의 당당한 새 국기를 날리며 세계에 보란듯이 등장하였으니 민족 재생, 건국의 대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 수 있겠는가.

역사적인 건국위업을 실현하신 그날 저력으로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항일의 녀성 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여태 고생만 시켰는데 오늘은 내가 한 잔 보냈소라고 하시며 뜨거운 정, 크나큰 의미를 담아 술을 부으시었다고 한다.  
 그때 너사께서는 왜 아무것도 해주지 않느냐고 그러십니까, 당을 창건하고 군대를 창건하고 공화국을 창건한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니까, 한생애 쌓이고 쌓인 원을 다 풀어주시었는데 그것이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까라고 정중히 말씀드리었다.

격정없는 새길수 없는 배두산너장군의 말씀에는 준비를 가리운 고작은 차마 마저 없었던 조선사람들에게 따듯이 안아주고 풀어줄 진정한 조국을 안겨주신 민족의 은혜로운 어버이에 대한 인민의 뜨겁고도 열렬한 흠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더불어 기세차게 펼쳐이는 성스러운 기복을 바라보며 이 나라 인민 누구나 심장으로 절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영명하신 지도자를 모시어 나라와 민족의 존엄이 빛나고 국기도 불멸하다는 진리이다.

저이었다.  
 더듬어 볼수록 가슴뜨거워 온다.  
 일찍이 10대의 시절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시하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 백두의 험한 산줄기에 항일의 피어린 자욱을 새겨가시던 그 나날 사랑하는 조국강토와 인민을 그리시며 그이께서 구상하시고 무르익히신 것은 무엇이었던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이 주인된 새 나라였다.  
 항일의 포연이 그늘린 군복그대로 《해방된 조국에서》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를 발표하시어 새 조선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 주시고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바로 조선인민이라는 뜻깊은 개선연설로 천대받고 억압받던 인민의 심장에 새 조국건설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심어주시며 그들은 건국열의를 힘있게 조직발동하신 수령님의 불멸불후의 심혈과 로고를 한두마디의 실명으로 다 대신할 수 없다.

국기의 도안작성에도 그의 열화와 같은 조국애, 민족애가 뜨겁게 스며여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

은 피와 당의 두리에 굳게 봉인 우리의 혁명력량을 상징하는 붉은색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수천년의 유구하고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지고 있는 단일한 민족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흰색은 지금의 도안보다 좀 가늘면서도 선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기복과 공화국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푸른색 역시 지금보다 가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흰 동그라미는 지극히 맑고 순수하고 기발대역폭으로 놓으며 그 안에는 미래의 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그려넣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저주로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던 인민에게 세상에 제일 훌륭하고 기백넘친 국기를 안겨주시려 사색을 거듭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이 있어 이 땅의 주인을 누구나 숭엄히 후려 쓰는 오각별 찬연한 람홍색공화국기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70여년전 경축의 광장에서 30대의 건국수반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영광을 삼가 드리며 백두산천지에서 제주도 끝까지 새 기발 높이 삼천만은 나섰다고 목청껏 노래부르며 모두당당히 행진해가던 인민의 힘찬 모습은 눈앞에 선히 안겨온다. 어제날의 머슴군도 있었고 죽음의 제사공장에서 시달리던 녀공들도 있었다. 당파와 소속, 주의주장을 앞세우던 민족주의자도 있었다.

기복과 감각에 울고웃으며 한목소리로 터친 《김일성장군 만세!》의 우렁찬 환호성, 그

것은 망국노의 설움을 깔잡고 비로소 자기의 참다운 국가주권을 가지게 된 한없는 기복과 환희였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치시고 나라를 찾아주시었으며 온갖 민족적 천대와 멸시, 무권리속에 헤매이던 자기들을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는 참

## 승리의 행로에 나뉘어온 국기

시련도 많았고 넘기 어려운 고비도 많았다. 하지만 세대와 세대를 이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겨온 공화국기발이었다.  
 언제든, 어디서든 그 기발을 바라보며 애국의 진한 피와 땀으로 성스러운 기복을 물들여온 이 나라 인민에게 있어서 공화국기발은 무엇이었던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있는 오늘도 인민군용사들의 위훈을 전하는 사연들은 공화국기발이 수많은 전사되어있다. 그중에는 가렬치절한 전화의 나날 12명 전사들의 손에 손을 거쳐 휘날린 공화국기도 있다.

포화속을 몇몇몇만이나 헤쳐왔는지 무려 270여군데나 총탄에 뚫리고 파편에 찢긴 공화국기발, 달려가던 기수가 쓰러지면 다음 전사가 이어받고 그 전사가 쓰러지면 또 다른 전사가 이어받으며 그 피터입만은 순간도 멈추지 않았다.

공화국기발, 그것은 어버이수령님 안겨주신 기복진 옥토밭이었고 구수한 낱알향기와 만물들의 기쁨이었으며 자기들의 손으로 인민의 대표들을 선출하며 긍지높은 선지장의 환희였다. 티없이

된 인민의 정권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감사의 인사였다.  
 진정한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의 넘고 의지가 살아숨쉬는 공화국기발은 인민이 주인된 새 조선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린 자랑스러운 조국의 기발, 인민의 기발이었다.

## 승리의 행로에 나뉘어온 국기

맑은 아이들의 웃음처럼 수령님의 품속에서 끝없이 밝고 창창할 내 조국의 미래가 바로 용사들의 가슴에 간직된 공화국기발이었다.  
 바로 그래서였다.  
 최후를 앞둔 감방안에서 피젓은 옷자락을 모아 공화국기를 만들던 애국자들, 사랑하는 고향과 학교를 짓밟은 원수에 대한 중요성을 안고 적들의 머리에 공화국기를 띄우며 공포와 죽음을 안기던 애국적 투사소년공작대원들...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공화국정권이야말로 인민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며 인민민주주의제도야말로 참다운 삶과 행복을 안겨준 보금자리라는 것을 폐부로 절감하였기에 남녘로 소수까지도 모르는 행복한 삶을 누려온 인민이 터친 다함없는 고마움의 청송이며 언제나 승리만을 펼쳐온 공화국의 무궁무진한 힘의 원천에 대한 긍지높은 찬가이다.

지금도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잊을 수 없다.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수십년동안 자랑스럽게 휘날려온 사회주의기발이 련이어 내리워질 때 세계는 우리를 표시하였었다. 동방의 조선에

서는 국기가 과연 얼마나 존재하겠는가.  
 하지만 숭고한 조국애, 인민관을 지니시고 사생결단의 의지로 견고결연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결이 있어 인민군인들이 지켜낸 조소마다 공화국기발은 조국수호의 가치로 떨칠 나뉘었고 그의 전선길을 따라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 시련도 웃으며 이겨간 인민이 있는 곳 어디서나 공화국기발은 창조와 혁

신들의 봉화가 되어 새세계 휘날렸다.  
 자부와 정의의 앞길을 환히 밝혀준 희망의 표대로 빛을 뿌린 공화국기를 세계가 우리리 격찬했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조국도 인민도 국기도 하나의 모습으로 찬연한 빛을 뿌려왔거나 공화국기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애국유신의 빛나는 상징이다.

## 세월이 가도 더욱 찬연할 람홍색기발

자력자강의 힘으로 전진하는 대오로 투쟁할, 애국열을 더해주시며 시대의 송가로 힘있게 울려 퍼지는 노래 《우리의 국기》.  
 거대한 진폭으로 천민의 심장을 틀어잡은 이 노래를 마음속으로 따라부를 때면 저도 모르게 가슴 뭉클 젖어드는 생각이 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생의 뜻과 녀민이 어려웠던 사회주의집적력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높이 날려주시는 이 세상 가장 눈부신 공화국기에 대한 무한한 격정과 환희이다.  
 모든 것이 몰라보게 변모되었다.  
 제국주의자들의 가증되는 제대압살행동속에서도 조선은 약동하는 젊음으로 수초처럼 자라나고 위상은 아득한 경지에 이르렀으며 조국 땅 어디서나 새세계 나뉘어온 공화국기발은 인민의 마음속에서 고마운 사회주의모습으로 더욱 깊이 자리잡았다.  
 류경안과 종합병원, 옥류아동병원,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경성군 종합남새농장, 양성천문화휴양지... 한해가 다르게 조국강산에 늘어만 가는 행복과 문명의 재부들, 그속에 심신을 잡고 고 부름없이 터치는 기복의 웃음소리이다. 자력갱생을 기적과 번영의 보금으로 틀어쥐고 인민을 손잡아 승리의 언덕으로 역세게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이 땅 어디서나 자력자강의 창조물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한몸의 위엄을 무뎠스시고 그이께서 헤쳐가신 화선길을 따라 조국의 만민대계의 번영을 확고히 담보해주는 주체무기들이 련이어 태어났다.  
 어찌 잊을 수 있랴.  
 자신께서는 늘 수령님과 장군님의 녀민대대로 우리 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있다고, 우리 나라를 세계의 상상봉에 올려세우자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 ◎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

### 민족사에 빛나는 새 폐지

주제37(1948)년 9월 어느날 평양에서는 공화국정부수립을 정속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열렸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대회에 참석하시어 연설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연설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은 자주 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력사에서 빛나는 새 폐지를 열여놓았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 인민은 이제부터 자기의 정부를 가진 당당한 민족으로서 항상 자기 정부의 옹호를 받을 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으로서의 위신과 권리와 영예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었다.

을 위하여 조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여 땅이 있는 것이다. 당은 조국건설의 무기이다.  
 그러시고는 우리의 사회주의조국

### 인민의 대표에게 투표하시여

주제104(2015)년 7월 어느날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그날 도, 시, 군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평양시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와 서성구역인민회의의 대의원 후보자에게 투표하시었다. 그리고 대의원후보자들을 만나시고 담화를 나누신 그이께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을

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이 꽃피어나고 후손만대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어있는 참다운 조국이 라고 하시었다.

그리시면서 앞으로도 인민의 대표답게 사회주의 내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숭고한 자각과 본분을 다해나가야 한다고 고무 격려하시었다.

본사기자

### 조국과 당

주제75(1986)년 1월 초 어느날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사람들속에서 조국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할 때 하여 강조하시면서 조국은 모든 사

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고 삶과 행복의 요람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조국과 당의 호상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당은 조국을 위하여 필요하다. 당

인민의 꿈과 희망이 어서 행복과 번영의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새우신 밤, 걸으신 새벽길은 그 열마인지 모른다.

그 조국은 너무도 힘이 약한 나라였으며 중당에는 나라마다 세 빼앗겨 땅국노의 설움을 두고두고 뼈에 새겨온 우리 겨레였다.  
 그런 인민이 오늘은 세상

## 모든 꿈 이루어주는 나라

을 곱어보며 산다. 자주강국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저마다 띠었다. 그러나 조국을 어찌 찬양하지 않으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 인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더욱더 빛나고 주체조선의 위력은 백배해지고있다.

국방력강화를 위해 차디 찬 바다물에 옷자락 적시며 새벽길을 이어가신분, 잘 익은 강병을 손에 드시고 더욱 풍요할 이 땅의 메일을 그려보시며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던 인민의 령도자, 인민들의 식탁에 바다향기 넘칠 그날을 그려보시며 수산

누구나 조국없인 못살지만

## 영원한 나의 조국

사회가 인민을 위한 사회이며 어느 사회가 미래가 창창하고 어느 사회가 앞날이 없는 사회인가를 실지 체계를 통하여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공화국이야말로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나가는 권위있고 존엄높은 나라이다.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값높고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려가는 세상,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며 병이 나도 약값과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를 내지 않고 치료받는 세상!  
 이것이 바로 내 안겨사는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이다.  
 노래에도 있듯이 오늘 공화국인민들은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 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다는 가슴 뚫힌 자부심을 안고 살아 가고있다.

그러나 외세가 주인공을 하는 땅, 외세에 빌붙어 잔멸을 부지하는 메국노들이 살판치는 남조선사회는 남이 사는 내 땅이었고 진정한 내 조국이 아니었다.  
 나서자란 땅이라고 하여 결코 조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주의 남조선사회에서 40여년, 공화국의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30여년간을 살아오면서 나는 과연 어느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본사기자 김영범





# 사랑과 은정의 20년, 축복과 행복의 20년

— 비전향장기수귀환 20돐에 즈음하여 —



## 그 은정 하늘에 닿아

지금으로부터 20년전인 2000년 9월 2일, 신념과 의지의 강자들이 63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위해로운 조국, 공화국의 품에 안기는 세계적인 사변이 일어났다. 사람의 한생에서 반생이라고 할수 있는 30~40년세월과 희생을 버리고 모진 악행에도 굴함없이 자기 정도자만을 굳게 믿는 불같은 신념과 의지로 자기의 청춘 그리고 삶의 모든것을 강그리 통일성업에 바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

비전향장기수들이 조국의 품에 안기던 날 그들만이 아닌 온 나라가 크나큰 환희와 감격, 꿈같은 현실에 뜨거운 격정의 눈물을 흘렸다.

그 누가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이나 되는 비전향장기수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기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이것은 비전향장기수들을 당과 조국을 위해 한생을 바친 참된 혁명가로,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투사들의 전형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 모든 행복과 영광을 다 주시기 위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바쳐오신 끝없는 로고와 헌신의 귀중한 결실이다.

주체89(2000)년 6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는 남조선에 있는 비전향장기수들을 그들의 소원대로 모두 데려와야 한다고, 데려

다 지금껏 누려보지 못한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그로부터 며칠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간으로서 최악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30~40년동안 지조를 지킨다는것이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전향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감옥살이 고통을 면할수 있었지만 비전향장기수들은 그 어떤 유혹이나 장악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데려오면 최상으로 우대해주고 높이 내세우며 자랑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의리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조국에 돌아오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앞길에 환영의 꽃바다를 펼쳐주시고 그들이 행복과 영광의 절정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해주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을 당의 품에 데려왔으니 마음이 놓인다고, 이제는 그들이 청춘을 되찾아 여생을 아무런 불편 없이 행복하게 보내도록 하는것이 자신의 임무로 된다고 하시던 아버지장군님.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품에서 60여명의 비전향장기수들이 맞고보낸 날과 달들은 만사람의 심장을 울려주는 사랑의 서사시로 수놓아져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누리지 못한 행복, 빼앗겼던 청춘을 되찾아주고싶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공화국의 품에 안

긴 비전향장기수들이 새 정을 이루는데까지 관심하시었다며 모진 고통과 박해의 후과로 질병을 앓고있는 그들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공화국의 권위있는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해주시고 귀중한 보약들도 아낌없이 보내주시었다.

수십년세월 철창속에서 용감히 싸우고 혁명가의 지조를 지킨 그들의 삶을 값높이 빛내여주시려고 아버지수령님의 존엄이 모서진 시계와 공민의 최고영예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 조국통일상을 비롯하여 높은 국가표창도 안겨주도록 하신 아버지장군님이다. 생는길을 헤쳐서며 멀고 험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어는 깊은 밤 곁방인 피로도 풀리지 않는 비전향장기수들의 생활을 료해하시고 수십가지 보약과 지팡이까지 마련해주신 가슴뜨거운 이야기, 회귀한 고기도 그들의 식탁에 먼저 오르도록 해주시고 민속명절날이면 민족음식을 잘 차려 대접하라고 오곡까지 보내주신 다정한 사랑, 삼복달림도 몸보신에 좋다는 단고기도 맛보게 하시고 눈오는 겨울이면 털내의와 솜옷, 털신과 털모자까지 보내주신 뜨거운 은정, 생일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생일상도 보내주신 친어머니의 보살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

지 못할 아버지장군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은 그대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재생의 불사약이 되어 원수들에게 짓밟혔던 그들의 육체에 청춘의 활력을 부여주었다. 그 사랑, 그 은정속에 남조선에서 《숨쉬는 화석》으로 불리우던 비전향장기수가 귀여운 딸자식까지 보아온 나라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어제 그뿐이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세상을 떠난 비전향장기수들을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하시어 그들의 삶을 조국이 알고 후대들이 영원히 기억하도록 해주셨다. 정녕 그것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의 삶을 영광의 언덕에서 빛내여주시려는 한없이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빛나는 결정체였다.

비전향장기수들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에 의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

민족의 대국상을 당하고는 나라 인민들이 피눈물속에 몸부림치던 그 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누구보다 큰 상사의 아픔을 안으신 속에서 명절을 맞는 비전향장기수들에게 고급어족을 비롯한 식료품들을 가득 안겨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자신께서는 삼복철의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면서도 비전향

장기수들의 건강을 염려하시어 휴양길과 료양길, 동해명승 송도원과 천하철승 금강산으로의 탐승길도 마련 해주셨다.

비전향장기수들이 로당익장하여 통일애국투사로 인생의 영광을 빛내어나가도록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사랑에 의해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 경축행사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대표로 참가하는 최상최대의 영광을 받아안았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고있는것은 오직 숭고한 동지애와 혁명적의리의 최고화신인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우리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격동적인 화폭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세계, 인민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원수님께서 계시어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의 행복한 오늘과 래일이 있다. 지금껏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받들어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수령님과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에 여생을 강그리 바쳐나갈것이라는것이 비전향장기수들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조국의 품에 안기는 비전향장기수들을 열렬히 환영하는 평양시민들



조국 통일상을 수여받는 비전향장기수들



사랑의 생일상을 받아안은 비전향장기수 한장호선생



위대한 장군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배려하여주신 살림집들

남쪽땅에서 거의 전반생을 육고속에 살고 기억없는 생을 연명하던 내가 공화국에 새 운명의 닦을 내리고 그것을 편 때로부터 어언간 스무해가 됐다.

세월은 가고 추억은 온다고 지나간 세월의 날과 날이 나의 뇌리에 어제일처럼 되새겨진다.

다 꿈만 같다.

30여년이란 세월 유혹에서 잃고 빼앗겼던 인간의 권리와 자유, 사회적존재로서의 가치와 존엄과 같은 모든것을 되찾고 진정한 삶을 향유하고있다.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할아버지로서 혈육들의 보호속에 살고 사회적으로는 신념과 의지의 강자, 통일애국투사로 불리우며 존경과 사랑을 받고있다.

앞가슴에 빛나는 공화국영웅, 조국통일상메달을 붙 때면 인간으로서, 공화국공민으로서 누리는 최고의 영예와 존엄에 대해 눈시를 뜨겁도록 느끼곤 한다.

나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평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모두에게 들려준 무상의 영광과 사랑에 대한 지표이다.

그 국가적배려와 관심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보살핌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에 햇빛처럼 따듯이 스며들었다.

## 수기: 저녁노을은 아름답다

집필활동에 전념했다. 샘처럼 솟는 정력에 심혼을 기울여 《삶의 노래》, 《생이란 무엇인가》, 《태양가까이에서》와 같은 도서를 집필했으며 그 나날에 사회정치학박사가 되었다.

남쪽에 있을 때 고작해서 《새는 나는 꽃마다 것을 남긴다》는 책 한권을 내뱉을뿐 무디고무디었던 펜으로 독자들이 애독하는 책들을 펴낼수 있는것은 지옥의 나락에서 꺼져가던 내 운명을 건져주고 인생의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준 은혜로운 삶의 품이 있기때문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덕망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몇해전에 금강산에 휴양을 갔을 때 일이다.

나를 본 외국의 한 관광객이 나더러 관광을 왔는가고 물었다. 나는 관광이 아니고 가족과 함께 휴양을 왔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관광이 아니라 휴양을 온것을 보면 돈많은 사람이나 직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가 되물었다.

나는 그에게 부자도 아니고 간부도 아니다, 국가의 배려로 휴양을

은 비전향장기수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대뜸 내 손을 움켜쥐며 비전향장기수선생을 여기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다고, 세계가 다 아는 조선의 비전향장기수선생을 만나보게 된것은 이번 관광에서 얻은 제일 큰 소득이라고 흥분을 터쳤다.

지난 7월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연설의 자자구구를 새겨들으며 나는 눈물을 적셨다.

우리 당은 로병동지들이 앞으로 로당익장하여 영광스러운 한생을 빛내어나가도록 모든 정성을 다해 보살피며 동지들의 건강과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지금도 내 귀전에 생생히 울려오는듯싶다.

그이는 위대한 장군님과 똑같은인령장중의 령장, 인덕의 화신이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사랑이 내 운명의 활력소가 되고 자랑분이 되어 환희기에도 마음은 젊어 내 인생은 저녁노을처럼 아름답다.

저녁노을은 새날을 부르는 령이기도 하다.

희열과 활력에 넘쳐있는 나는 내 운명의 품인 조국을 사랑한다.

김동기(비전향장기수)



장시

# 영원한 사랑의 품이여!

비전향장기수일동

세월은 류수라더니 어느덧 20년이던 세월이 흘렀구나 9월 2일!

죽어 넘어도 문히리라던 조국에 살아 꿈만 같이 안기던 그날로부터

쇠진한 옥신에 활력의 생명이 흘러든 회심의 날과 날 더듬자니 눈물이 앞서고

아껴주고 보살펴준 은혜의 달과 달 터놓자니 목은 메이고 가슴은 찢듯 해라

받아안은 그 모든 영광 빛을 들어 새긴다면 다 전하라

무엇이든 20년세월은 여생이 몇날, 몇달이 될런지

가능조차 할수 없었던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에게

있었던 반생을 찾아준 기적이던가 미처 기억조차 다 할수 없는

무한한 기쁨의 이야기, 누린 락의 전부이던가

돌아켜보면 지옥보다 더한 우린 산 무덤속의 화석

30, 40여년 죽음과 고통, 적막과 고독의 그 세월은

한창시절의 피만을 말리웠던가 행복이란 말자체를 알아갔더니

내려치는 각목에 뼈가 으스러지고 철사에 통창 살점이 떨어져나갈 때

어찌 살기를 원했으리요 소름돋는 피절은 끔찍한 형틀우에서

어이 매일에 대해 생각할수 있었으리요

차라리 죽음이 간절해지던 세월 출옥도 생명도 가정도 포기했던

그 모진 세월을 이기게 한 힘은 무엇 이었던가

사랑이었다 강한 아들을 바라보는 민음의 눈길

약형에 퍼터진 상처 쓰다듬어주는 손길이였다

고문장에서 시체처럼 끌려들어올 때

원수들과 싸워이기고 돌아왔노라 동지들의 부축임으로 곳곳이 일어나

철창너머 바라보던 조국의 하늘 그 리없는 푸르름이 우리 사랑이였고

못이 닳으면 손톱이 닳아 모지라 지도록

감방담벽에 새겨넣던 조선지도 남몰래 떠안고 소담히 피워가던 들꽃

이름은 알걸없어도 그 붉은 잎새가 피고름 영건 가슴벌의 뜨거운 사랑

이었다

사람들이여 비전향장기수 우리의 옥중년환을

약형과 의지의 대결로만 말하지 마시라

우리의 사랑, 그리움을 빼앗으려

내흔들던 희유와 유희는 더 악착 했노니

정말 참기 어려웠어라

진심을 터놓건대 견디기 힘들었어라

혈육의 정이나 신념이나 이 선택앞에

지조를 지키는것은 절개를 꺾지 않는다는것은

1초, 2초 수십년맛잡이로 흐른 그

몇초

피말리는 순간을 형리들이 지켜보고

가족들도 가슴 구겨치고 바라보았다

선택이 이처럼 어려운것임을 배신과 신념은 종이 한장사이에

있음을

살아서 나오기만 해라

젖은 눈으로 만신창이 된 몸 더듬어

곱셈던 혈육들의 애절한 당부

간을 녹이는 원수들의 꿀발린 회유

어떻게 이겨냈는지 말로써야 얘기 하려면

구태어 터놓는다면 그것은 사랑!

조국에 대한 사랑

그것을 잃으면 졸지에 버림받은 막돌

되고

버리면 머리집은 짐승 되고말기에

지금은 없는 그날의 어머니들이여

그 사랑을 지켜 당신들의 아들이

한 어머니의 자식 아닌 조국의 강한

아들 되었거니

신념이란 무엇인가

죽어 상여에 실려나갈지언정

결코 살아선 못 간다는 철창속에서

짓밟히고 부서지고 찢겨지면서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은 사랑이 아니더냐

오, 9월 2일!

판문점에서 평양까지 꽃물결 펼쳐

명절처럼 풀었던 수백리길이여

그토록 안기고싶었던 장군님들이여

가슴열어 터치던 감격은

그이 주신 새 생명의 벅찬 고고성

이었으니

상상도 못했어라

그날부터 년년이 달과 달

화석처럼 강말랐던 가슴이

활력의 증인양 행복의 눈물로 마를

새 없을줄

높뛰는 흥분으로 잠 못 드는 밤

그밤이 새면 또 걱정의 아침 찾아

울줄은

누구는 그 격동 서화에 담아보고

누구는 시로 엮고 수기의 갈피로

전한다지만

받아안은 정 따스한 은혜

다는 전할수 없고 다는 노래할수

없어

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하나 그보다 어머니가 지닌 사랑의

깊이를

백발을 이고도 헤아릴수 없는

자식의 부끄러움 더 안타까운것임을

다 주고도 놓친 사랑, 못 준 사랑

있어선듯

늘 심려를 덜지 못하신 아버지

자애의 그 심중엔 우리가 무엇이던가

흰 파도에 등실 몸을 띄우고 웃음

떠우던

송도원의 은모래백사장이 말해주지

않느냐

가슴에 번쩍이는 영웅메달

조국통일상메달이 다 말해주지 않느냐

장군님마음속에 우리모두는

제일 가까운 동지, 귀중한 전사들이

였다

풀어져 아껴주고 내세워주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의 곁에

그이의 뜻과 의리에 머리숙이지노라

나이들면 망각은 피할수 없다

했건만

오래오래 건강하여 장수하라고

원수님 보내주신 은정깊은 생일상

우리 감사의 끈질 삼가 올리였더라

정말 고마워라

페인이나 다름없던 우리 고엽인생들

에게

소생의 숨결 부어주어 일으킨 손길

장군님사랑 그대로 이어

극진히 보듬어 아껴주고 내세워주시는

아, 원수님의 따사로운 은정이며

하루가 멀다하게 찾아오는 기쁨

날마다 푸르러지는 우리의 인생이여

누구나 묻더라

백년장수하는 보약을 쓰는거라고

그렇더라 장수의 비결이 사랑인것을

이 사랑이 《명약》이요 《보약》

인것을

진함없이 불란다는 어머니의 사랑도

세월의 어느 순간엔가 끝날 때 있고

극진한 안해의 정성도 다할 때 있건만

끝도 없이 베풀어지는 원수님사랑

그이품에 이제

100년, 1 000년을 더 살고싶어라

아름다운 추억 삼가 더듬어

서물어도 진심의 고백 터놓았건만

하냥 가슴에 새우는 사랑의 노래

나날이 더해지는 궁지와 행복이며

정녕 터치여 그 끝은 어디인가

사랑은 열과 정으로 와닿는 뜨거운

바다의 깊이 하늘의 높이에 비겨야

다 헤아릴수 있는 깊고 높은 세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너무 미흡하구나

우리 원수님사랑을 노래하기엔

우중고초의 수십여년세월

아침마다 수의일망정 옷깃 바로 여미고

삼가 인사를 드리던 우리 비전향

장기수들

매일 아침 당중앙창가를 우리러

원수님안녕만을 간절히 바라노니

조국의 품에 안긴 뜻깊은 이날

가슴에 안겨지는 수많은 꽃다발

다 모아, 아니 이 땅의 꽃을 다 엮어

우리의 은인이신 김정은원수님

인민의 아버지께 드리고싶은 마음

사랑으로 강하시여 폭제를 짓누르시고

사랑으로 열렬하시여 만민을 품고

사랑으로 눈부시여 세기를 밝히시는

철세의 평도자 우리의 평도자

생이 다할 때까지 충실하리라

오, 우리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도

가슴속 터치고픈 송가는 비로소

시작인듯

비전향장기수 우리모두 안겨사는 품

인민이 안겨살 영원한 사랑의 품

백발의 아들들은 자손만대 노래하

리라



공화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나날을 보내여온 비전향장기수들

공화국의 품에 안긴지 20년이 되는 지금 비전향 장기수들의 나이는 보통 70, 80, 90살 지어 100살을 가까이한 사람도 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고 활기에 차있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그들속에는 작가, 시인, 화가, 서예가, 박사들도 있으며 음악가동맹, 작가동맹, 미술가동맹 맹원도 있다. 국가미술전람회, 민요경연의 입선자도 있고 조선문학추진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닌 사람도 있다. 민사람의 축복속에 자기의 값높은 삶을 구가하는 시작품을 창작하고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원고지에 옮겨가며 창작의 열정과 나래를 펼쳐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 주고있다. 돌이켜보면 지금으로부터

20년전 비전향장기수들이 판문점을 넘어 공화국의 품에 안길 때만 해도 그들의 몸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피골이 상접한 얼굴들, 지팡이에 의지하여 간신히 발걸음을 내딛거나 지어 삼문차에 몸을 실은채 조국의 품에

안긴 사람들도 있었다. 거의 다 백발을 머리에 인 로인들이었고 페인이나 다름없는 몸들이었다. 모두가 감옥에서 30, 40년을, 그것도 중세기의 모든 악행을 통가하는 악착한 고문과 정신적고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0.75명의 폐쇄된 독감방에서 겨울에는 알가슴을 가릴만한 한 포단도 없이 자야 했고 여름에는 온몸이 그대로 땀투성이가 되어야만 했다.

매일같이 가해지는 악착한 고문으로 육체는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그 긴 세월 먹는것이란 공포리밤 한덩이와 소금극 반죽자가 전부였다. 그야말로 살아있는것자체가 기적이나 같다고 할수 있

었다. 그랬던 그들이 조국의 품에 안겨 꿈같은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았다. 공화국에서는 혁명가의 신념과 지조를 지켜싸운 그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의 값높은 칭호를 안겨주었고 인간이 누릴수 있는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올려세워 주었다.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생활을 따듯이 보

살펴주고 그들의 몸건강을 위해 귀한 산삼이며 특용, 꿀을 비롯한 값진 보약들을 아낌없이 보내준 고마운 품. 그러나 몸도 마음도 쪼어질 수밖에 없다. 하기에 비전향장기수들은 태양의 축복속에 흘러온 20년세월은 지옥에서 락원로의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가장 참담하였던 생이 가장 빛

나는 생으로 된 궁지와 행복넘친 나날이었다고 이야기 한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기력이 떨어지고 몸도 마음도 이전같지 않은것은 어쩔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고목에도 꽃을 피워 주시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정이 있어 세월이 가도 기력이 왕성하여 료당익하는 사람들이 바로 비전향장기수들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어떤 삶이 아름다운가

인생은 두번다시 찾아올수 없는 한생이다. 때문에 한생을 떳떳하게, 아름답게 사는것이 중요하다. 속담에 《법은 죽어 가 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 않았던가. 하다면 어떤 삶이 가장 긍지롭고 아름다운 삶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들인 비전향장기수들에게서 찾는다. 온 겨레가 다 아는 삶, 온 나라가 축복하는 삶, 더우기 평도자의 가장 높은 신념과 크나큰 배려를 받아안은 삶. 인간세상에서 이보다 더 값지고 빛나는 삶은 있을수 없다. 말그대로 삶의 절정에 오른 비전향 장기수들이다. 그들의 복반은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다. 성스러운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서 모진 약형에도 굴함이 없이 신념과 랑

심, 지조를 끝까지 지켜 싸웠기때문이다. 예로부터 신념의 인간들은 존경을 받아왔다. 반대로 신념과 지조를 버린 사람들은 변절자, 배신자로 타매되어왔다. 비전향장기수들이 수십년간의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변함없이 간직했던 그 신념은 조국을 따르는 한마음, 자기 정도자를 끝까지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굳센 마음이었다. 《전향》이라는 한마디 말만 하면 그들은 지긋지긋한 옥살이와 갖은 고문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그러나 옥체적고통을 면하려고 그 길을 택했다라면 정신적불구, 폐자의 신세를 면치 못하였것이다. 그들은 감옥에서 어느 한순간도 사랑하는 부모 처자들이 있는 고향과 조국을 잊은적이 없다. 살인적인 고문을 당하면서도 눈가에는 정든 부모처자, 어머니조국의 믿음어린 시선을 떠올렸고 지친

몸을 끌고 독감방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는 그 하루를 긍지롭게 총화하곤 하였다. 어머니조국이 우리를 지켜본다. 내 죽더라도 끝까지 싸워 넘어도 조국의 품에 안기리라. 이것이 비전향장기수들이 철창속에서 매일 배시자 마음속에 다지곤 한 비장한 결의였다. 그들은 그렇게 싸워 마침내 이기고 신념의 승리자들이 되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이런 장한 아들들을 어머니조국은 두발 벌려 따듯이 안아주고 높이 내세워주었으며 줄수 있는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고있다.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가. 그것은 비전향장기수들처럼 정의로운 애국의 한길에서 신념과 의리를 지켜 굴함없이 투쟁함으로써 정도자의 사랑을 받고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사는 삶이다. 본사기자 한일혁

평양시교외의 신미리에 있는 나지막한 통선에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애국렬사들이 있다. 애국렬사들은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나라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우다 희생된 려사들의 위훈과 업적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하며 빛내이기 위하여 세운 기념비이다. 누구나 오르고싶어도 쉽게 오를수 없는 인생의 절정에 올라 오늘도 삶을 빛내이는 사람들.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살아 영원히 삶의 빛을 뿌리는 그 복받은 사람들중에는 통일일을 위해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비전향장기수들도 있다. 김경태, 김일진, 안영기, 김중중, 리종, 김선명... 얼마나 존엄높은 삶인가. 얼마나 행복스러운 삶인가. 비전향장기수들을 세상이 다 알도록 내세워주고 죽어서도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는것이 공화국의 따사로운 품이다. 하나를 주면 열백을 주고 싶어하고 곁에 있는 자식보다 멀리에 있는 자식을 더

## 영생의 언덕에서

생각하는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비전향장기수들을 하루빨리 조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세워주시고 그들이 공화국의 품에 안겼을 때에는 옥중고초로 폐인이 된 건강들을 추세우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고

풀속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은 행복을 누리보지 못한 가정의 단란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여생을 보내였다. 하기에 그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죽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신념과 의지란 어떤것인가를 깨우쳐주며 조국통일성업에 남은 인

생의 마지막나날까지 바칠수 있었다. 그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날 때마다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장례를 나라에서 크게 치르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고 유해를 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해주신 위대한 장군님과 영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정녕 전사의 의리를 지켜 싸운 비전향장기수들을 수십년이 지났어도 잊지 않고 끝끝내 찾아 품에 안아주고 따듯이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곁에 비전향장기수들은 온로도 레일도 통일애국의 길에서 우리 겨레와 함께 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모란봉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1)

을밀대의 아름다운 경치



평양의 한복판을 흐르는 대동강기슭을 따라 길게 놓여있는 금수산에 최승대를 중심으로 서로 잇달러 등글 등글하게 솟아있는 산봉우리들의 모양이 마치도 금시 피어나는 모란꽃을 방불케 한다 하여 그 이름도 모란봉. 모란봉은 예로부터 칠따라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고 수

림이 울창하며 역사유적 또한 많아 평양의 절승으로, 이름난 명승지로 일러왔다. 얼마전 우리는 리일심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와 함께 모란봉의 역사유적들을 돌아보았다. 모란봉에 이르니 금방 내린 비에 씻겨워 폭우이 더욱 질어보이는 주위의 경치

가 한쪽의 그림처럼 한눈에 안겨왔다. 《정치풍은 모란봉에는 역사유적도 많은데 모두 6세기 중엽에 고구려가 평양성을 수도성으로 정하고 쌓은 지휘처와 성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리일심 연구사와 함께 우리는 먼저 외래침략자들을 용감하게 쳐 물리치고 조국강토를 지켜낸 우리 선조들의 애국투쟁을 전하는 전설과 일화들이 깃들어있는 을밀대로 향하였다. 리일심 연구사는 모란봉에서도 을밀봉쪽대기에 자리잡고있는 을밀대의 구조상 특징은 가파로운 산악에 깊이 뿌리를 박고 높이가 11m나 되는 높은 축대우에 무정을 세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고고하고 고구려대 이 장대를 굳건히 지켜싸운 을밀장군의 이름에서 유래된것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을밀대에 올라 푸른 물 출렁이는 대동강을 가로지른 청류다리와 풍랑인민유원지, 웅장한 러명거리를 비롯하여 친지각벽된 평양의 경치를 한눈에 담으니 절로 경탄이 나오니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이 타 트인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있다고 하여 《사허정》이라고도 불리웠고 《을밀상촌(을밀대의 봄맛이)》으로 일찍부터 평양 8경의 하나로 꼽혀온 을밀대의 경치를 뒤로 남기고 우리는 칠성문으로 향하였다. 글 본사기자 김충경 사진 본사기자 동창현



상쾌한 기분, 《미남자가 되었다》

얼마전 류경원을 지나던 우리는 이곳에서 금방 리발을 하고나오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었다. 《확실히 류경원 리발사들이 솜씨가 있거든.》 《다음번에도 친절한 봉사성으로 소문난 이곳에서 리발을 하세나.》

이곳에서 산뜻한 봉사복을 차려입고 봉사에 여념이 없는 리발사들의 가위질소리가 귀맛 좋게 들려왔다. 우리의 만난 박영애작업반장은 손님들의 머리단장을 현대적미감과 정서, 기호에 맞게 잘해주기 위해 노력하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리발을 하고난 한 청년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곳에서 리발을 하고나면 미남자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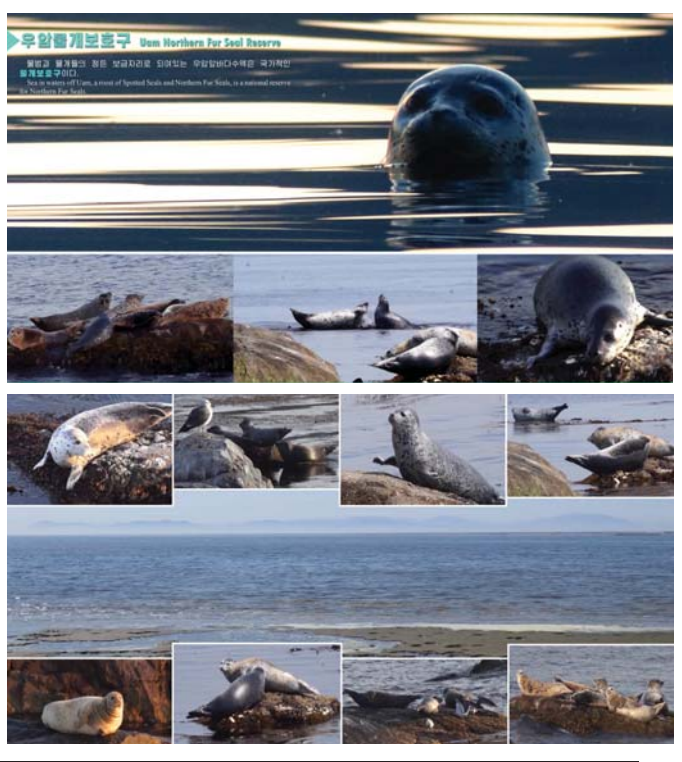
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특히 몸단장에서 머리단장은 매우 중요하다. 머리단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인물이 돋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어떤 머리 형태를 많이 요구하고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김금옥리발사는 호름형, 패기형, 구름형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청년들속에서 보기에 시련한 메기머리로 깎아줄것을 많이 요구하고있다고 말해주었다. 그의 말을 통하여 우리는 머리단장을 하나 해도 시대적미감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해나가고있는 사람들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엿볼수 있었다.



방금 리발한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보며 더없이 만족해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봉사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인상깊었다. 본사기자 김진혁

라선지구의 다양한 생태계 (3) 무암물개보호구

공화국의 동북부에 위치한 라선지구에는 국제적으로 의의를 가지는 라선천생물보호구, 알섬바다새번식보호구와 함께 무암물개보호구도 있다. 물범과 물개들의 정든 보금자리로 되어있는 무암알바다수역은 국가적인 물개보호구이다. 이밖에 다양하고 풍부한 생태계를 가지고있는 라선지구의 아늑한 숲과 맑은 호수, 진펄, 넓은 바다연안에서는 노루, 청서, 다람쥐, 여우, 새를 비롯한 산짐승들과 여러종의 곤충들, 수생동물들 그리고 특산식물인 선봉피나무, 천연기념물인 우암산벗나무, 송이버섯 등 동식물들의 다양한 세계를 관찰할 수 있다. 본사기자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을 새로 발굴

최근 황해남도 안악군 일지에서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이 새로 발굴되었다.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역사유적발굴사업을 적극 벌리는 과정에 고구려 벽화무덤 2기와 금장식품들을 새로 발굴고증하였다. 새로 발굴한 첫번째 벽화무덤은 무덤안칸의 천장이 평행삼각고입천정으로 된 돌칸 흙무덤으로서 그 형식이 전형적인 고구려시기의 것이다. 4개의 벽면과 천정에서는 사신도와 지금까지 발굴된

고구려벽화무덤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자리, 룬꽃무늬, 구름무늬, 룬꽃잎, 보리수, 거북잔등무늬 등 일부 그림부분들이 발견되었다. 두번째 벽화무덤도 고구려 시기의 돌칸흙무덤으로서 여기에는 해를 형상한 그림을 비롯한 많은 벽화 조각들이 남아있다. 무덤들에서는 정밀하게 가공된 금귀걸이와 꽃잎모양의 장식품을 비롯한 9점의 금장식품들도 나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에서는 안악군 일지에서 발굴된 벽화무덤들이 6세기 전반기에 축조된 것으로 확증하였으며 고고학분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데 대하여 심의평가하였다. 고구려시기 3품이상의 관료들만 벽화무덤을 쓸수 있었다는 문헌자료에 비추어볼 때 고구려벽화무덤과 유물들이 새로 발굴된것은 이 지방이 고구려의 중요한 행정적중심지의 하나였다는것을 새롭게 밝히고있다. 본사기자

고등어는 기름지고 맛있으며 영양가가 높다. 고등어속인 고등어는 생선으로 라 탕동, 절임, 통조림하여 먹는다. 고등어는 흰살과 붉은살로 구성되어있는데 흰살에는 단백질이 적으며 기름이 많다. 붉은살에는 흰살보다 사람에게 2배 필요한 철분이 거의 2배나 더 많다. 그리고 필수아미노산, 미량원소,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기때문에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좋다. 고등어줄임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등어 1, 미나리 또

는 속삭 0.2의 비율로 음식감을 준비한다. 고등어는 깨끗이 손질하여 내장을 꺼내고 3~4로막으로 자른다. 꽃마늘은 굵게 썰고 미나리는 잎을 따버리고 3~4cm 길이로 썰고 마늘은 다진다. 냄비에 미나리를 조금 깔고 고등어를 넣고 참기름, 간장, 깨소금, 마늘, 고추가루, 꿀 등 모든 양념을 잘 섞어 고등어에 고루 발라서 물을 조금 넣고 세지 않은 불에 오래 졸인다. 이렇게 하면 맛있는 고등어줄임이 완성된다. 본사기자

민족 요리 고등어줄임



사화

천 인 독 (2)

글 전철호, 그림 리성일

늪은이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더니 정색하여 말했다. 《은인은 물귀신을 조심해야겠소이다.》 그 말에 웅기는 소름이 짝 끼쳤다. 물란리라는 소리만 들어도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였다. 《은인에게 좋기는 물귀신이 용을 쓰지 못하게 하는것인데...》 웅기는 당장 화색을 띠고 구원의 눈길로 늪은이를 쳐다보았다. 《그렇게도 할수 있소이까?》 《할수 있다마더요.》 웅기는 늪은이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발 가르침을 주소이다.》 《첫째 수는 제일 손쉬운 것인데... 물귀신이 있는 이 고장을 떠먼 뒤오이다.》 웅기는 마음이 상하여 얼 굴썩까지 변화했다. 다른 고장으로 이사를 간다고? 어떻게 제 환몽을 구하고저 조상들이 묻어있는 정든 고향을 내버리고 갈수 있단 말인가. 《로인님! 다른 수를 가르

쳐주소이다.》 《둘째 수는 뽕우어른의 가르침을 따르면 되오이다.》 《뽕우어른이라니요?》 《옛적에 우리 겨례를 불러일으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임금이 계시는데 단군이라고 하지도. 단군성왕님의 신하들속에는 뽕우라는 사람도 있었소이다. 그 어른은 늘 사람들에게 자기 산은 고장을 살기 좋게 하자면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려야 한다고 깨우쳐주었소이다.》 웅기는 놀라서 반문하였다. 《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오이까?》 《산에 나무를 심는것이 산을 다스리는것이고 개울바닥을 파내고 든든한 돌을 쌓는것이 곧 물을 다스리는것이오이다. 그러면 횡으로 물귀신도 맥을 추지 못하지요.》 《산에 나무를 심는것이 산을 다스리는것이고 개울바닥을 파내고 든든한 돌을 쌓는것이 곧 물을 다스리는것이오이다.》 《그말소이다. 제 당장 특 뽕기를 하겠소이다.》 늪은이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무테나 특을 쌓아서는

턱을 볼수 없소이다. 내 오면서 보느라니 죽배천을 가운데 끼고 이 마을의 동쪽산과 남쪽산이 마주 바라보이는 골안에서 두개의 내물이 합쳐지는데 합쳐진 개울의 옆을 따라 외동길이나 있소이다. 그 외동길이란개울에 붙어있는데다 길바닥 또한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개울물에 잠기겠은즉 어찌 물귀신이 용을 쓰지 않겠소이까. 개울바닥을 파서 길을 썩 돌고어주고 그걸로 내물이 들이지 못하게 특을 든든히 쌓아주어야 물귀신이 맥을 추지 못하오이다.》 《그런데 일이 여간 공력이 많이 들지 않겠으니 웬만한 사람은 마음도 먹지 못할것이오이다.》 《은인은 늪은이의 손을 잡고 부르짖었다.》 《로인님! 믿어주소이다. 마을을 위하여 나를 위한 일인데 어찌 일구이언하겠소이까.》 《효꼬!》 첫달이 해를 치는 바람에 웅기는 잠에서 깨어났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앉으니



나서 그런 소리를 해주었는가. 여기 자루목에서 개울을 파내어 길바닥을 높여주고 그 길을 따라가며 높고 든든한 돌을 쌓으란 말이지. 그러나 막상 특을 쌓자고 해도 발목을 잡는것이 있

그날 밤 웅기는 이부자리에 틀기 바쁘게 눈을 감고 잠을 청했다. 어서빨리 어제 꿈에 본 그 늪은이가 또 나타나서 특쌍기에서 걸리는 일감들을 풀어주는 조언을 해주길 바라서였다. 특쌍는 일을 벌려놓자니

맑고 깨끗한 조선의 샘물

공화국에는 강수량이 풍부할뿐 아니라 수질이 좋은 샘물도 많다. 옥석산줄기의 신덕수(평안남도 원천군)와 금강산의 금로수, 묘향산의 불로샘 등은 사람들의 건강에 아주 좋다. 공화국에서 샘물의 수질이 좋은것은 특수한 지질조건과 관련된다. 국토의 절반이상이 화강암과 화강편마암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들의 풍화층은 물을 깨끗하게 여과시킬뿐 아니라 맑게 정화하는 작용을 한다. 이러한 지대의 샘물은 어디서나 맑고 깨끗하며 물맛이 좋다. 금강산, 묘향산, 통악산, 정방산, 구월산, 칠보산 등의 물이 좋은것은 이 때문이다. 본사기자

어느 한 나라의 학자는 신덕수와 자기 나라 수도물을 비교분석하기 위해 각각 1L분의 물을 10년동안 냉장보관하였다가 분석해보았다. 결과 그 나라 수도물에서는 0.2mg의 광지가 없었고 수질은 변하여 마실수 없었으나 신덕수에서는 광지도 없었고 수질도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의 샘물은 사람들의 건강에 매우 좋은 음료수로 인정되고있다. 본사기자

속담과 뜻

◆저는 잘난 백성으로 알고 남은 현 정승으로 안다. 불꽃없는자가 주체만능도 저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은 못났다고 여기며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경우에 비겨 이르는 말. ◆네 각담이 아니면 내 소뽕이 부러지랴. ·남의뺏으로 자기가 손해를 보았다는것을 이르는 말. ·자기 잘못으로 입은 손해를 공연히 남에게 돌리우려고 억지로 트집을 잡는것을 두고 이르는 말. ◆무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잘될것은 애초에 알린다는 뜻으로 어린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긍정적인 특질이나 기질을 놓고 말하는 경우에 이르는 말.

《두상의 의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 (두상), (두상) 하지 않았다. 《아버지, (두상) 이라는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인가요?》 《이 녀석,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니?》 《그럼 이제부터 나도 할 아버지를 (두상) 이라고 부를래요.》